

‘안산 대부포도축제’ 19~21일 대부바다항테마파크서 개최

비가 오는가운데서도
행사장 찾는 관람객들
주차장 가득메우고 즐겨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부바다항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년 안산 대부포도축제’가 열렸다.

시는 올해 30주년을 맞아 축제 기간을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렸다.

19일 포도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에 ▲대부해솔길 걷기(20일) ▲안산 마라톤 대회(21일) ▲방아머리 해변 선셋 콘서트(20일) ▲주민 축제 ‘대부애 한마음 축제’ 등이 열렸다.

행사장에서는 ▲포도 밭기 체험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오감만족 프로그램 ▲대부포도 디저트 시식 ▲어린이·가족 참여형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방문객은 지역 농·특산물 및 대부포도 판매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맛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가기도 했다.

다양한 공연도 열렸다.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사흘간 ▲동춘서커스 ▲음악회 ▲대부동 주민자치 공연 ▲마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부바다항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년 안산 대부포도축제’가 열린 가운데 19일 대부바다항테마파크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메웠고 비가 내려서 인 듯 관람객들은 천막 안에서 먹거리를 맛보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다. 멀리 축제 공연장과 승마체험장도 보인다.

술쇼와 ▲페막식 공연이 방문객을 맞았다.

이와 함께 ▲나무 놀이터 ▲승마체험장 ▲포도 터널 포토존 ▲홍보관 부스 ▲포도 밭기 댄스타임 등 다양한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포도 밭기 댄스타임의 경우

20~21일 이틀간 하루 두차례씩 진행됐다.

다양한 먹거리부스도 마련됐다. 대부동 직능단체와 어촌계에서 파전, 칼국수, 두부, 떡볶이, 닭꼬치, 옥수수 등을 판매했고 이주민인 베트남 가족들도 베트남 쌀국수 등 다양한 음식

들이 관람객들의 먹거리를 책임졌다. 올해 특별한 점은 예년에는 있었던 푸드트럭을 한 대도 부르지 않고 먹거리는 모두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것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28일 ‘기업인의 날, 슈퍼콘서트’연다

GOD 유닛 ‘호우’, 다듀,
거미 등 화려한 출연진
시민 누구나 추천 통해 참여

안산시는 오는 9월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2025 안산페스타 제2회 기업인의 날 기념 슈퍼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시와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안산상공회의소, 스마트허브여성경영자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식전공연 ▲기념식 ▲슈퍼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 공연에는 디퍼, 김연호, 청춘소년단이 출연하며, 기념식에서는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과 기업발전 유공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펼쳐지는 슈퍼콘서트 무대에는 god 유닛 ‘호우’, 화사, 거미, 다이 나믹 듀오, 전유진, 임한별 등이 출연한다. 방송인 박수홍이 사회를 맡으며, 화려한 불꽃 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민근 시장은 “지역 기업인들의 헌신과 도전 정신은 안산 경제의



안산시기업인의 날 기념 슈퍼콘서트 디지털 홍보자료. 윤성용 기자

근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지난해 제1회 행사에 이어 이번 슈퍼콘서트가 기업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어울려 희망을 나누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람 신청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reserve.ansan.go.kr)에서 할 수 있다. 안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인당 2매씩 배포된다. 추첨 결과는 9월 24일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22일부터

인당 10만 원 지급

안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분 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가구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의 국민을 선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

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첫 주는 요일제로 신청된다. 22일(출생연도 끝자리 1, 6) 23일(2, 7), 24일(3, 8), 25일(4, 9), 26일(5, 0)이다. 안산 시민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안산화폐 다운) 중 원하는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어플리케이션·ARS,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시 승격 40주년 기념 슬로건·엠블럼 국민 공모 진행

다음달 10일까지 공모진행

안산시는 내년도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슬로건과 엠블럼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안산시의 정체성과 시 승격 40주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아내고, 쉽고 간결한 문구와 이미지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슬로건과 엠블럼 각 2작품 이내로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응모 방법은 참가신청서와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작품과 함께 이메일(limbom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독창성 ▲함축성 ▲작품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6점을 선정하며, 상금은 최대 100만 원이다. 결과는 10월 말 안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031-481-24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슬로건과 엠블럼이 안산시 40주년 기념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전원주택, 토지, 펜션, 매매 및 분양

포도나무부동산TV
YouTube **032.880.047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12 (구봉도 입구/ 배터지는 집 옆)

市,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 채택... 글로벌 협력 기반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갈등 아닌 혁신과 활력의
원천이라는 데 공감”

안산시는 18일 ‘2025 안산 상호문화 도시 국제심포지엄’ 본행사를 개최하고 ‘상호문화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나카노 유스케 일본 하마마츠 시장, 리타 마라스칼치 유럽평의회(CoE) 포용통합 사무국장을 비롯한 국내외 5개국 8개 도시 대표단과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산시와 일본 하마마츠시를 중심으로 ‘혁신, 포용, 공동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굳건한 아시아 상호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갈등이 아닌 혁신과 활력의 원천임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시정 모든 분야에 상호문화적 관점을 통합하는 ‘혁신 도시’ ▲모든 주민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 도시’ ▲상호문화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동발전 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이날 이어진 본 심포지엄에서는 상호문화도시를 이끄는 리더들의 비전이 공유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민근 안산시장(맨 뒷줄 오른쪽 여덟번째)이 18일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열린 2025 안산 상호문화도시 국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로서 안산이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아시아 최초 상호문화도시인 일본 하마마츠시의 나카노 유스케 시장이 ‘하마마츠시의 선도적 노력’을, 리타 마라스칼치 유럽평의회 사무국장이 ‘실천으로서의 상호문화도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민근 시장이 일본, 필리핀, 몽골, 중국 등 5개국 6개 도

시 대표단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상호문화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심도 있는 학술 논의를 진행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로서 안산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혁신, 포용, 공동발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위해 나아갈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였

다”며 “공동성명을 발한 삼아 모든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공동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4개국 17명의 해외 참가자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글로벌다문화센터, 산업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해 시의 선진적인 외국인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호수공원 가족친수놀이터 물놀이장 20~21일 무료 시범운영

지난 14일부터 본격 운영

안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호수공원 가족친수놀이터 물놀이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과 아이들의 여가 활동 확장을 위해 새롭게 탈바꿈한 가족친수놀이터는 지난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는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놀이장,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춘 가족형 친수 공간으로 조성을 완료했으며, 개장 첫날부터 많은 시민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시민들의 추가적인 운영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시는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추가 개방을 진행한다. 운영 시간에는 안전 요원이 상시 배치돼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호수공원 내 시설 정

비로 시민들의 여가와 편의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려견 놀이기구와 펜스, 쉼터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노후화된 매점 현대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다양한 식음료 서비스를 갖춘 복합 편의 공간으로 개선했다.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대표적 명소인 호수공원을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호수공원 가족친수놀이터 물놀이장을 시범 운영한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비빔밥으로 시작하는 마을이야기, 로얄아파트 ‘마을밥상회’ 열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로얄아파트의 변화시작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현선 센터장)는 17일, 안산동 로얄아파트 입주민들과 점심을 나누며 마을 현안을 논의하는 ‘마을밥상회’를 개최했다. ‘마을밥상회’는 매주 수요일 주민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반사회적 편견을 해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김민정 관장)과 안산동 주민자치회(김태화 회장)가 협력해 아파트 이웃 간 관계 회복과 ‘로얄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로얄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39년 차 아파트로, 1인가구와 독거노인 비율이 높고 전·월세 거주자가 많아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주차, 안전, 청결 등 생활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안산동 주민자치회가 힘을 모아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시범사업에 응모했고,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개별 대응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생활 불편을 주민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5월에는 협력 주체들이 함께 125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욕구 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밥상회’를 기획했다. 첫 모임은 17일 오전 11시 로얄아파트 나동 앞 정자에서 열렸으며, 안산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17일, 안산동 로얄아파트 입주민들과 점심을 나누며 마을 현안을 논의하는 ‘마을밥상회’를 개최하면서 비빔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동 수암봉 키링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시작해 〈다 함께 비빔밥〉을 먹는 공동 식사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사전에 조사된 아파트 환경 개선 의견에 스티커를 붙이며 ▲놀이터 정비 및 모래 뒤집기 ▲주방 환풍시설 개선 ▲외벽 페인트 도색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다. 센터와 협력기관들은 ‘마을밥상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민 리더를 발굴하고, 이웃 간 연결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민들이 생활 속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제적인 마을 활동

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선 센터장은 “마을의 변화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마을밥상회가 로얄아파트 주민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곡종합사회복지관과 안산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안산동의 변화를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 신규 위촉

역량 강화 위한 워크숍 진행

안산시는 16일 엠블런호텔에서 시정의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민감사관과 안산시 감사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립국악단 공연,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민감사관의 자세와 역할, 실무사례 등을 통한 직무교육과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이 실시됐다.

전문분야 30명, 일반분야 1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안산시 시민감사관은 2027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자체감사 참여 및 자문역할을 비롯해 시민 불편과 부당사항 제보 등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민근 시장은 “제6기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40분의 시민감사관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안산시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달 30일까지 휴게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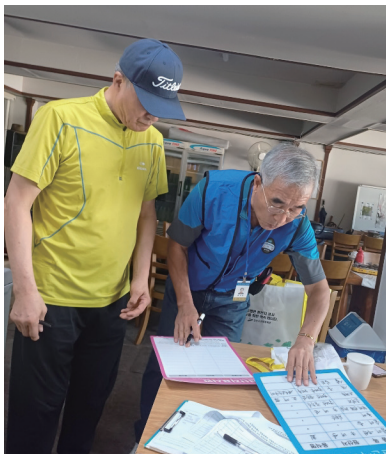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안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휴게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커피숍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휴게음식점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안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휴게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윤성용 기자

를 진행한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은미 도의원, 안산 고령 보훈대상자 위한 요양병원 지정 건의

안산 내 보훈 위탁의료기관 요양병원, 안과, 치과 전무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산 내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은미 의원은 18일 김기호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장, 김동수 전 안산시 의원, 경기도 복지국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안산의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단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봄과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지정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 감면 혜택을 국비로 제공하고 있다. 보훈 위탁의료기관

종류는 병원, 일반 의원, 안과, 치과, 요양병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안산 내 보훈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1개, 일반 의원 4개뿐으로 요양병원, 안과, 치과는 전무하다. 고령 보훈대상자는 치료와 장기요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 요양병원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보훈요양원이 없으면 이를 별개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고령 보훈대상자분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의료기관과 요양원을 오가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가에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우를 갖춘다면, 접근성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더 적



이은미(오른쪽에서 세 번째) 경기도의원이 18일 안산 내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할 것을 경기도 복지국 직원에 건의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복지국 보훈 담당자는 “안산의 요양병원 보훈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한 ‘가족센터’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부당해고하고 이행강제금도 안 내는 불공정 상황 확대

박해철 의원, 수납 전문인력 도입 등 특단의 대책 강조



고용노동부의 올해 6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이 사상 최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처음 20%대로 떨어진 이후 2024년 17.4%를 기록했고, 올해 6월 기준 14.1%를 기록한 것이다.

박해철 의원(사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수납 실적을 취합해야 하지만, 지난 해 6월 말 기준 수납률이 14%인 점과 누적 징수결정액 증가상

황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가장 낮은 수납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납률이 낮아지면 누적 징수 결정액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수납률은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게 문제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부당해고등(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이 설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금전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포함

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인정건수도 2021년 1만4,008건 이후 매년 증가. 2024년 2만1,181건(인정 1,727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건수는 12,490건으로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을 가능성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도 408건으로 지난해 85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건수 증가, 이행강제금 증가, 이행강제금 수납률 하락 추세는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라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은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등을 남발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수납률까지 10%대를 유지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노동과 노동 착취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이행강제금 수납 전문인력 도입을 통한 수납률 제고는 물론 부과액을 높이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예산 더 늘리도록 노력할 것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6일 디지털전환허브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발전방향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조업 혁신 위해 현장 목소리 담아 지원 강화”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디지털전환허브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발전방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지난 6월, 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며 사업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로봇 도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철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산업현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의원 시절부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해왔음을 언급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산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창 기자

강태형 도의원, 12년 만의 감액 추경 건설 분야 예산 106억 삭감 ‘도민 우려’



이번 제2회 추경은 12년 만에 실시된 감액 추경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대폭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예산은 증액되었다. 특히 건설국 세출예산이 약 106억 원 줄어들면서 도민

이제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예산은 증액되었다. 특히 건설국 세출예산이 약 106억 원 줄어들면서 도민이 타당하다면 이미 1차 추경에서 정리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고 올해도 집행률이 25%에 불과하다”며 “2022년 이후 단 한 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민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5%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1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회의 결과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실적 없음, 평가 추진 불가’로 기록된 채 건설국 예산으로 8개월을 허송세월 했다”며 “교통국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미 1차 추경에서 정리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제일로타리클럽, 불우이웃돕기 자선골프대회

17일 ‘더 헤븐CC’에서
상금 전액 이웃돕기 기부

‘우리함께 선행을’ 강조하는 국제로타리클럽3750지구 안산제일로타리클럽(회장 배상모, 이하 로타리클럽))이 17일 불우이웃돕기 자선골프대회를 갖고 상금 전액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자선골프대회는 2025년 9월 월례회를 겸해서 이뤄졌다.

안산시 대부동 소재 ‘더 헤븐CC’에서 진행된 로타리클럽 자선골프대회는 선수로 1부리그 4명, 2부리그 12명, 3부리그 8명 등 모두 24명이 참여했다.

상금 전액을 전달하기 위해 이들은 그린피와 조별 그늘막 이용을 개별 부담으로 처리했다.

상금은 △메달리스트 최저타상 200만원 △신페리오 우승상 200만원 △니어 리스트상 50만원 △롱기스트상 50만원 등 총 500만원이었다.

모든 상금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전액 기부됐다.

클럽 회원들에게는 월례회 시상으로 상품이 수여됐다.



국제로타리클럽3750지구 안산제일로타리클럽이 17일 대부동 소재 ‘더 헤븐CC’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골프대회를 갖기 전 단체사진을 찍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각부 우승자에게는 골프공 1더즌 큐비앙스 1박스, 최저타상 골프공1더즌(로스트볼), 포토 제닉상(조) 큐비앙스 올리브앤미 4박스, 행운상으로 1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권

(기존 수상자 제외)이 전제됐다. 이날 대회에 앞서 배상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 로타리클럽 회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봉사도

하는 1석2조의 날이 밝았다”면서 “안전사고 없이 상쾌한 마음으로 회원간 친목도 다지면서 오늘 하루 즐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우리나라 최초 여성 Korea 변검 가수 이시향



변검 가수 이시향이 행사를 위해 변검으로 복장한 모습이다. 변검하며 노래까지 즐기는 Korea 변검 가수 이시향은 그래서 귀한 존재다. 김태창 기자

한국식 변검의 연마술사
작사, 작곡가 후배도 양성

우리나라 최초 여성 Korea 변검 가수 이시향을 만났다.

변검은 중국 사천극에서 가장 유명한 묘기로 한국에서는 드문 사례여서 귀하게 취급되고 있다.

변검의 묘미는 순식간에 다양한 얼굴을 변화시켜 사람들은 매료시킴으로써 관객들이 신비로워 한다는 데 다른 묘기와는 다른 재미가 있다. 변검의 신비로움에 빠져 변검을 배웠고 변검 가수로 활동을 시작한 가수 이시향.

변검과 가요를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이자 관객들은 변검의 신비로움에 빠져든다.

관객들의 표정과 함께 신명나는 노래로 관객들을 흥으로 휘어잡아 열주~ 춤을 추며 관객과 함께하는 변검 가수 이시향은 그래서 더 독특하다. 변검과 함께하는 이시향 가수가 각종 행사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다.

중국인이 변검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관객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변검 가수 이시향은 중국의 변검을 한국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변검으로 변화시켜 무대에 서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변검 가수 이시향은 중국의 변검을 한국식 변검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아리랑을 부르며 징, 팽과리, 북, 장구와 함께 하는 풍물가락에 트롯가요 웅취야 민요를 덧붙인 것이다. 당시 당시 우리 춤사위로 함께하는 Korea 변검. 한국식 변검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변검 가수 이시향이 변검 복장으로 각종 행사 무대에 오르면 새로운 변화를 온 몸으로 느끼는 관객들은 관심 폭발로 호응한다.

신나는 변검 율동이다 신나는 리믹스 뿔뿔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연으로 변검 가수 이시향이 공연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다.

가수이면서 작사, 작곡가로도 활동하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Kotea 변검술사 이시향. 자신의 노래는 물론 많은 후배가수를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변검으로 변화를 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립루씨어린이집, 본오2동에 플리마켓 수익금 기부



시립루씨어린이집 김선주 원장(사진 오른쪽)과 아이들이 17일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플리마켓 수익금 12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단법인 루씨최용신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진행
나눔 물품은 루씨어린이집 어린이·교사·주민들 참여

‘사단법인 루씨최용신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영덕)’에서 지난 11일 시립루씨어린이집과 공동으로 ‘루씨네 다시! 플리마켓’ 나눔장터를 개최했다. 나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을 물건들을 ‘다시!’ 활용해 물건의 사용수명은 늘리

고, 불필요한 쓰레기는 줄여 환경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구상한 서로 나누는 플리마켓이었다.

플리마켓 장소는 본오3동 소재 시립루씨어린이집이었다.

나눔 물품들은 루씨어린이집의 어린이들과 교사들, 동네 주민들이 서

로서로 참여했다. 종류별로는 △놀이감과 교구 △책과 인형 △육아용품과 생활용품 △옷과 신발 △계절 야채 등이 모아졌다. 행사에 참여하기 전 사단법인에서는 참여 어린이와 부모들 대상으로 ‘최용신 선생님 바로알기 미션!!’을 진행했다.

마켓에 입장하기 전 입구에서 최용신 선생과 관련된 여러가지 퀴즈 중

하나를 뽑아 문제를 듣고, 정답에 해당하는 사진을 인근의 ‘장수어린이공원에 가서 찾아 사진 찍어 오면 맞있는 팜쿤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혹시 답을 모르면 법원에서 공원 곳곳에 숨어 있는 최용신 선생과 관련된 사진을 안내하고, 함께 답을 찾아주는 도우미 역할도 했다.

미션 내용은 최용신 선생과 안산의 역사를 잘 모르는 어린이와 외국인 주민들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미션 봉사는 법인의 정희정 이사과 어린이집 원장인 김선주 회원이 담당했고, 그밖에 플리마켓을 위해 본오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봉사를 해주었다.

플리마켓을 통해 모금된 120만원은 1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시립루씨어린이집 김선주 원장은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현우 본오2동장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소상공인과 함께!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단양·속초·강릉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025년 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워크숍 ‘우수 시장·우수 점포 견학’을 9월 3일과 9~10일 양일간 2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충북 단양(1회차)과

강원도 강릉·속초(2회차)에서 진행되었으며, 안산시 소상공인과 재단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방식의 현장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 활성화 전

략과 경영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방침 아래, 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우수 상권과 점포를 중심으로 견학지를 구성했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시장과 점포가 관광형 상권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문제 해결 사례를 시장 상인회 대표와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듣고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태창 기자

고잔高, 세계시민아카데미 인공지능 히어로 특강

미래 사회 핵심 역량
AI와 함께 세계시민 성장

고잔고등학교는 9월 12일 방과 후, 세계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공지능 히어로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특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AI)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1·2학년 학생 50여 명이 참여해 인문사회실과 도서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인공지능(AI)의 정의와 개념을 배우는 기초 활동부터 ▲AI 창작물 찾기 활동 ▲오트도로우·뤼튼 등 최신 서비스 체험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프로젝트 ▲자신만의 AI 서비스 기획 및 공유 활동까지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단순한 기술 이해를 넘어, AI를 도구로 활용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강 강사진으로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진로탐색과 창의융합 교육을 진행해온 히어로코치 2인이 참여해 몰입형 체험 수업을 이끌 예정이다.

고잔고는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 진로탐색 능력, 협업과 의사소통 역량을 함께 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세계시민아카데미가 지향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과 맞닿아 있으며, 미래 사회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구 교장은 “인공지능 히어로 특강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AI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선부3동 새마을회, 추석 명절맞이 환경정비



단원구 선부3동 새마을회는 지난 16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 내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부3동 새마을회가 주관한 이번 활동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무성히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했다.

정확한 새마을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회는 항상 지역 주민 곁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혁 선부3동장은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새마을회 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선부3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살기좋은 선부3동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 맨 앞에 새마을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선부3동의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성포동 통장협의회, 야생화정원 정비 및 가을꽃 식재



상록구 성포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야생화정원에서 추석맞이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가을꽃을 심으며 마을 가꾸기 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꽃으로 단장한 화단은 주민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일상 속 작은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해 통장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사계절 꽃을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을 조성할 계획에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마을 환경 개선과 주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순덕 성포동장은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어 성포동을 위해 봉사해 주신 통장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활동이 성포동을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와동 새마을회,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행복 나눔 실천



단원구 와동 새마을회는 회원 10여 명이 모여 200여 평의 휴경기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수확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17일 밝혔다.

와동 새마을회(회장 김치동·부녀회장 김영숙)는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한 쪽파, 배추 등을 관내 경로당, 지역 아동센터 등에 배부해 행복 나눔과 이웃사랑에 앞장섰다.

김치동·김영숙 새마을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농작물 수확에 힘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와동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

하고자 직접 재배한 배추와 쪽파를 나누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수애자 와동장은 “힘든 이 시기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너무 많은데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며, 나눠 주신 온정에 힘입어 한 지붕 아래 따뜻한 와동’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월피동, 강원도 홍천군으로 직능단체 합동 워크숍



상록구 월피동 행정복지센터는 16일 직능단체 화합을 위한 ‘월피동 직능단체 합동 워크숍’을 추진했다.

관내 7개 직능단체원과 동 직원 등 84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단체 간 유대와 화합을 도모해 직능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으며, 강원 홍천군 소재 하이트진로 공장과 천년고찰 수타사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단체원들은 하이트진로 홍천공장 견학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산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수타사를 찾아 사찰 문화와 자연 경관을 체험하며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한경삼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단체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월피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직능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만 월피동장은 “워크숍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한경삼 주민자치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전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일동 새마을부녀회, 추석 앞두고 정성 담은 반찬 나눔



상록구 일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5일 추석을 맞아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10가구에 직접 만든 불고기 반찬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행복나눔터에 모여 정성스럽게 불고기 반찬을 만들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보냈다.

오덕자 새마을부녀회장은 “명절에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정

성이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숙 일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따뜻한 봉사를 해준 새마을부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일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나눔으로 넘쳐나는 일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해양동 지사협, 반려식물 전달로 안부 보살핌 사업



상록구 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반려식물 돌봄을 통한 성취감을 제공하고,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지지에도 도움이 되는 반려식물 나눔 행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동 지사협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대상자들에게 식물을 돌보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로 진행됐다.

정선구 지사협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이 이어지는 해양동 지사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훈기 해양동장은 “이웃에게 반려식물을 지원해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현장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대부도저널 5,000부 발행

대부도저널은 5,000부를 발행하고,

시내전역에 3,000부를 배포합니다.

대부도와 인연이 깊은 웅진군 영흥도와 선재도를 포함한

대부도 전역에도 2,000부를 배포합니다.

대부도저널은 안산시민과 대부도 주민을 위해

보다 빠르고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문의 전화 : 032-880-9994 / 팩스 : 032-880-9961

대표메일 : dj250407@naver.com

여러분의 애·경사를 알려드립니다

대부도저널은 대부도 주민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애·경사 및 행사 알림, 회원모집 등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좋은 사람, 좋은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칭찬소식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애·경사 및 행사 알림

알림 전화 : 032-880-9994 / 팩스 : 032-880-9961

대표메일 : dj250407@naver.com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메추리섬 매매

(주)리치개발 · 황금토목
차준환 M: 010.5558.6665

토지매매

(1)대부북동삼거리 인근 성장관리계획구역 주택단지
(2)건축허가 300평(도로56평 포함). 평당 90만원
(3)대부동동(영전마을)대송단지 앞 맹지.답. 350평 평당35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카강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K3 바다낚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낚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낚시터

등대바다낚시터

이한중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낚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경인서부수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대부 우체국**
032.886.00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3

 **군자농협 대부지점**
032.886.3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9-13

 **인천강화옹진 축산농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귀성길, 안전운전 하세요!’ 웅진군, 영흥면에서 교통민원실 운영

명절 앞두고 교통안전
교육과 면허갱신
민원 원스톱 지원

웅진군은 지난 17일, 영흥면 늘푸른 센터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인천광역시지부 및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인천중부경찰서와 협력해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교통 민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웅진군이 2023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추진해 온, 도서 주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원스톱 민원 서비스다.

이날 현장에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주민 약 60여 명이 참석해, 도로교통법, 사고 사례, 안전수칙에 관한 VR 교통안전교육과 음주고급을 활용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역 운전자를 위해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민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다가오는 추



웅진군은 지난 17일,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협력해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교통 민원실’을 운영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석 명절을 대비해 ‘귀성길 안전운전 캠페인’을 병행하여, 영흥파출소와 영흥면사무소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과 장거리 운전 시 주의사항 등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홍보 활동이 이뤄졌다.

웅진군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과 명절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는 시기로, 도로 위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웅진군은 앞으로 운전자의 인식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영흥면, 17일 삼박골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실시

해루질 명소로 알려진 삼박골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해 마련

웅진군 영흥면(면장 장혁준)은 17일, 삼박골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해루질 명소로 알려진 삼박골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박골은 물때에 따라 200대가 넘는 차량이 몰려 도로변이 불법 주정차로 점령되는 장소로, 일부 방문객들이 해루질 후 음료 캔, 음식물 포장지 등 각종 쓰레기를 도로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끊이

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 간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사고 위험 및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영흥면은 면 직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며 정화 활동을 펼쳤다.

장혁준 영흥면장은 “무분별한 해루질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정작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문객 대부분은 해루질 금지 등에 반하여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실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자발적인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 영흥면은 17일, 삼박골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신한은행, 공공배달앱 ‘땡겨요’ 업무협약 체결

17일, 군청 소회실에서

웅진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실에서 신한은행과 ‘웅진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땡겨요’ 도입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 더 큰 할인 혜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개수수료 2% 적용 ▲ 당일 정산 서비스 ▲ 사장님 지원금 제공 ▲ 앱 내 홍보 배너 운영 ▲ 웅진군 대상 특화 서비

스 발굴 및 제공 등이 포함됐다.

웅진군은 할인쿠폰 제공, 마케팅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이용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군과 신한은행은 가맹점 모집 및 홍보, 할인 이벤트 등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협약은 민선8기 핵심과제인 ‘소상공인 맞춤 지원’의 일환으로,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주민 생활 편의 향상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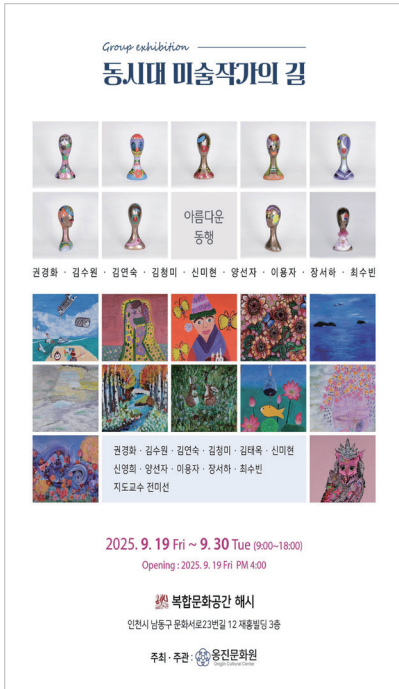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동시대 미술작가의 길” 수강생 작품 전시 개최

웅진문화원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웅진문화원(원장 태동철)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해사에서 웅진문화학교 「동시대 미술작가의 길」 과정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동시대 미술의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창작한 아크릴화 및 입체 작품 등을 전시하는 자리로, 지도교수(전미선) 및 수강생 총 12명이 참여하여, 39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부도 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월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기 위한 ‘저널 트레킹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두번째 저널 트레킹

1.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7시 출발 (오전 6시 50분까지 집결)
2. 장소 : 속리산 단풍 (세조길 & 법주사 일대 등)
3.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여행자 보험위해 주민번호 필요)
4.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5. 참가비 : 1인당 5만원 (식비, 관광버스 왕복, 간식, 물, 여행자보험 포함)
(계좌 : 농협 352-2309-3205-43. 예금주 : 이선화 / 입금 후 연락바람)
6. 집결장소 및 시간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김진경 의장, 제26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사회복지인 지원 나설 것
사회복지인에 감사 표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 밝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헌신한 사회복지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힘·파주1) 부위원장과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힘·안양4)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게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헌신한 사회복지인들에 감사 표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사회복지는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가치이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딛고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노력이 복지의 진짜 가치”라며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증

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활동이 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자

신을 희생하는 힘든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인의 헌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부심을 가질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경기도, 안산 한대앞역 상점가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공모’

우수한 건축 디자인 요소
반영한 경기도형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 상점가’에 경기도형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획일적인 전통시장 시설 보수에서 벗어나 창의적 건축 디자인을 접목해 전통시장 모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푸드&마켓 스테이지 센터’를 계획해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 지원 및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특화가로 조성계획으로 분절된 테마거리와 시장을 연결하고 다양한 이벤트 및 문화·예술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공모 심사기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준용하며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는 배치계획,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등을,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 과제에 대한 평가, 과업수행 계획서 등을 평가한다.

점수 및 심사를 거쳐 한대앞역 상점가는 12월 중, 행복로 골목형 상점가는 11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1등(당선작) 작품에 선정된 당선자에게는 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각 입상작에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형 전통시장 혁신모델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문화와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혁신적 생활 거점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김철진 도의원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현장과 소통, 공공업”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철진 의원이 배

“경직성 탈피하고 현장 중심
정책으로 혁신해야” 촉구

특급 관련 현장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기업육성과전은숙 과장과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이강현 대표(주식회사 베이스) 등 배달업 관련 앱 개발, 마케팅, 플랫폼 운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 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점검

할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시장을 독점한 거대 외국 자본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은 낮은 점유율과 현장의 외면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업가들로부터 배달특급의 여러 불편함과 개선 요구 사항을 전해 들었다”며, “오늘 당장 답을 내리기보다, 공공 앱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배달특급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앱 기능과 UI(사용자 환경) ▲가맹점-소비자 간 소통 창구 부재 ▲신규가맹점 확보를 위한 아웃바운드 영업 전무 ▲소비자 유인을 위한 쿠폰 중심의 단기적 정책 ▲부족한 홍보·마케팅 예산 및 전략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 앱 개발 전문가는 “현재 배달특급 앱은 기능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 다”며 “통합 앱 개발과 기능 고도화가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현장의 의견을 경청한 김철진 의원은 공공 영역의 경직성과 예산의 한

계를 인정하면서도,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한 번의 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앱의 가치를 높이려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늘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과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컨설팅을 받는다는 자세로 현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는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피싱클럽 회원모집

대부도에서 낚시를 떠나고 싶는데 선뜻 혼자 떠나기 망설여지시나요?

대부도저널 피싱클럽에서는 안산 대부도를 거점으로 전국을 무대로 생활낚시의 모든 장르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널 피싱클럽과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 저널 피싱클럽 소개

1. 활동내용 : 정기 출조, 낚시기술 공유, 친목도모
2. 낚시대상어종 : 우럭, 농어, 대광어,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백조기, 심해 갈치
3. 정기모임 일정 : 매월1회 정기 출조 (유어선 독배운영)
4. 대상 : 낚시를 좋아하는 모든 남,여 / 초보자 대환영 / 대부도 거점으로 서울, 경기권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가능
5.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동호회 혜택 : 초보자를 위한 낚시 장비 사용법 및 기초교육, 숙련된 회원들과 경험 및 노하우 전수

정기 출조 이벤트 및 선비 할인



안산시,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 대상... 참여 활성화 등 성과 인정

청년 친화도시로서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

안산시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최한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 대상을 수상하며, 청년 친화도시로서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 8회를 맞이했으며,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치단체의 공로를 인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친화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안산시는 ▲청년센터 상상대로·상상스테이션 운영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청년 주도 축제 개최 ▲청년 자립지원 ▲청년창업 펀드 운영 ▲e-비즈니스 활성화 등 참여·복지·일자리·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청년 정책을 실현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안산시의 청년정책이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자립하며



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청년정책관 직원들과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을 기념해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청년의 권익 보장과 자립 지원뿐 아니라, 청년이 편안하게 정주하며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청년과 함께 만들어 온 성과이자, 청년친화 도시 안산을 공고히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안산에서 희망을 찾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체육회 G-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창단 첫 전국대회 단체전 3위

전국 총22개팀이 출전

안산시체육회 G-스포츠클럽이 지난 9월7일부터 13일까지 경상남도 합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창단 첫 단체전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시체육회 G-스포츠클럽은 전국 총22개팀 출전 한 가운데 단체리 그A조(5개팀)에서 조1위로 당당히 결선토너먼트 진출 8강 경기에서 미리벌초A팀(경남) 게임스코어 3:2로 승리로 기세를 이어 준결승전에서 포천초를 상대로 치열한 경기를 펼쳤지만 2:3으로 아쉽게 패하며

단체전 3위를 거두었다.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 성적은 G-스포츠클럽

배드민턴부 창단 4년만에 첫 입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어 더욱 뜻깊으며 의미가 크다.

경기 후 G-스포츠클럽 강동주 감독(지도자)은 창단 첫 단체성적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훈련을 통해 대회마다 향상된 기량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전국대회 단체 및 개인전 우수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역 내 중등, 고등부 전문선수 연계 / 진학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수선수 타 지역 팀으로 이적, 이탈을 방지 하기위해 안정된

G-스포츠클럽운영 어려움과 과제가 있다고 전 하였다.

한편, 안산시체육회 이광중 회장은 안산시G-스포츠배드민턴클럽 창단



안산시G스포츠배드민턴클럽(초등부) 선수(왼쪽부터 박소정, 김은비, 최윤서, 이하연, 정서윤, 어유빈) 입상사진이다. 김태창 기자

이래 첫 전국대회 단체전 성적을 축하하며, 앞으로 안산시에서도 제2의 안세영선수의 탄생을 기대하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최상의 훈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하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전국 지자체 유일 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개 기관이 공동 주관

안산시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년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심사'에서 공공부문 최우수기관(Best HRD)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기관 내부적으로는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에게 한층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사는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 기반, 성과목표 관리 등)와 인적자원개발(기획 및 인프라 등) 두 분야에 대한 역량과 우수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시는 2007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데 이어 지금까지 7회 연속(3년마다 인증)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안산시는 ▲외부 전문 기관의 조직진단 ▲공정한 채용 ▲적절한 인력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적자원관리 최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거머쥐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 선정은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행정 업무에 임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AI·로봇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공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충무과 직원들과 '2025년 인적자원개발 심사'에서 공공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 모집

실습 중심 심화 과정 추진

안산시는 오는 18일부터 e스포츠 산업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5 안산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기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운영됐던 1기와 달리,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요구와 산업 현장의 실무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추진된다.

교육에서는 ▲e스포츠 이론 ▲e스포츠 대회 송출 프로그램 실습 ▲게임 장비 최적화 ▲현직자 특강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20명이다. 만 16부터 39세 사이의 청소년·청년 또는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은 심화 교육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참가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취지에 따라 올해 1기 수료생을 최우선 선발한다. 이어 관내 연고자(거주자 및 학생), 관외자 등의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를 촬영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제2회 기업인의 날 기념 슈퍼콘서트 안전관리 강화

잠재적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위한 안전대책 논의

안산시는 오는 28일 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회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 슈퍼콘서트'를 앞두고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정책 실무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위원회 위원과 행사 주관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 사항을 행사 전까지 보

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슈퍼콘서트에는 GOD 유닛 '호우', 화사, 거미, 다이아믹듀오 등 국내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며, 화려한 불꽃쇼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행사 전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수소 정책 벤치마킹 장춘시·산 페르난도시 대표단 영접

안산시는 17일 국제교류도시인 중국 장춘시와 필리핀 산 페르난도시 대표단이 'H2 수소도시 안산'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안산시를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장춘시는 중국 유일의 한·중 협력 국가급 시범구다. 현재 시범구 내에는 의료기기, 건강식품, 디지털경제 산업단지 등 20여 개의 산업단지

가 조성돼 있으며, 한국 기업도 21개사가 입주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필리핀 산 페르난도시는 2001년 10월부터 안산시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해 안산을 방문해 해안관광, 친환경 및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23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대부도를 트로트의 메카로 (상)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이미자 선생님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음반과 노래를 취입한 가수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 1990년 기네스북 등재 당시까지 발매한 음반은 무려 560장, 발표 곡은 2천69곡이었고 현재 2,500곡 넘는 노래를 불렀다.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1964년에 발표한 '동백아가씨'는 가요 프로그램 35주 연속 1위를 했다.

금지곡 가수로 유명하던 1966년 '동백 아가씨'가 금지되고, 그다음인 1967년에는 '섬마을 선생님'이 히트되니까 또 금지되고, '기러기 아빠'가 히트되니까 그다음 해 금지가 되었다고 한다. 전설, 말 그대로 '레전드' 가수, 이미자 선생님이 2025년 3월 6일자 KBS뉴스에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66년 만에 은퇴 시사」라 하였다. '엘레지의 여왕'이라 불리는 원로 가수 이미자는 보컬리스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대변해 온 한국 대중음악사에 있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선 대가

수, 애절하면서도 격조가 높고, 호소력 짙으면서도 우아한 가창력으로 현재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뛰어난 객석 파워를 자랑한다. 주 장르가 트로트이지만 전형적인 요즘의 꺾기 트로트 스타일이 아닌 오히려 블루스 스타일이 상당히 짙어 젊은 시절부터 재즈, 팝, 블루스곡들도 음반에 많이 남아 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대중가수 최초의 금관문화훈장 수훈자이다.

요즘은 트로트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좋아하는 국민가요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이미자 선생님이 1960년대에 불렀던 동백아가씨, 섬마을선생님, 기러기 아빠, 여자의 일생, 흑산도 아가씨 등 수많은 노래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애창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 깊이 남아 그 한을 달래 주는 것이다.

이미자 선생님의 3대 명곡하면 동백아가씨, 섬마을선생님, 기러기 아빠를 꼽는다.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의 인기는 대단하다. 이미자 선생님의 섬마을 선생님 노래는 빈에서(100만), 김용빈(100만), 김다현(200만), 아즈마 아끼(200만회), 전유진(1,100만), 린(1,000만) 등 수많은 인기가수까지 불러 유튜브 등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60년이 지난 노래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이기 때문이다. 섬마을



웅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섬마을 선생' 영화 촬영지 계남분교 건물, 사진제공 웅진군청



소야도의 폐교된 소야분교가 문화·전시·체험공간 '소야랑' 조감도, 사진제공 웅진군청

선생님 노래 배경지인 대남초등학교가 대부도 3개 초등학교 통폐합으로 2029년 없어지게 되었다. 대남초등학교 건물과 학교 사택은 산림청 소유의 학교 용지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에서 '섬마을 선생' 영화 촬영지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폐교가 개인에게 불하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웅진군이 폐교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2023년 3월 1998년 2월 폐교된 소야분교에 '소야랑(Soya-Rang)' 폐교 문화재생산업 조성 공사가 착공되고, 2025년 1월에 '섬마을 선생' 영화 촬영지인 대이작도 계남분교의 관광 명소화 사업도 시작되었다. 안산시와 경기도는 2029년 폐교되는 대남초등학교를 활용한 '탐사르 환경 교육'과 '섬마을 선생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 폐교 환경·문화재생산업에 힘써

야 할 것이다.

대남초등학교 앞 고랫부리 갯벌은 경기도 유일의 랍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안산시는 랍사르습지 전시관과 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학교 건물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국민가수 이미자 선생님의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기념관과 대부도 랍사르습지 전시관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트로트 메카로 발돋움시킬 수 있다.

랍사르습지와 이 노래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노래는 철새, 해당화 등의 환경적 요소와 철새 보호가 목적인 랍사르 습지를 융합하면 환경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랍사르 환경 교육과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데스크 칼럼

구봉도의 새로운 도약 주차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김태양
편집국장

안산 대부도의 구봉도 일원은 최근 다양한 개발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노레일 설치, 해양치유센터 건립, 그리고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앞바다에 인공방파제를 세워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하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 구봉도는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 못지않게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주차문제다.

현재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인근 주차장은 사실상 무료 개방 상태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관광객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관광객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운영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 관광객은 불편을 겪고, 어촌계원과 방문객 간 갈등 요인으로까지 번지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입구부터 기존 주차장까지를 체계적인 주차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입구에 주차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관리도 원활해지고 이용객의 편리성도 높아질 수 있다.

안산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안산 도시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종현어촌계가 관리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관리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구 주변에 위치한 산호횃집 등 일부 건물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공유수면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지역민과의 협력적 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

새롭게 정비된 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을 넘어, 구봉도의 관광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대형 차량의 회전이 어렵다는 기존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단체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요금을 받는 유료 주차장 체계가 자리 잡으면, 수익은 지역사회 발전 재원으로 환원할 수 있다.

관광객은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게 되며, 지역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구봉도의 미래는 분명 밝다. 하지만 관광 인프라 확충의 성패는 결국 기본적인 편의시설 관리에 달려 있다.

화려한 모노레일이나 해양치유센터보다도, 주차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구봉도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안산시는 대규모 개발 구상과 함께 가장 현실적인 현안부터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탁
Administration Office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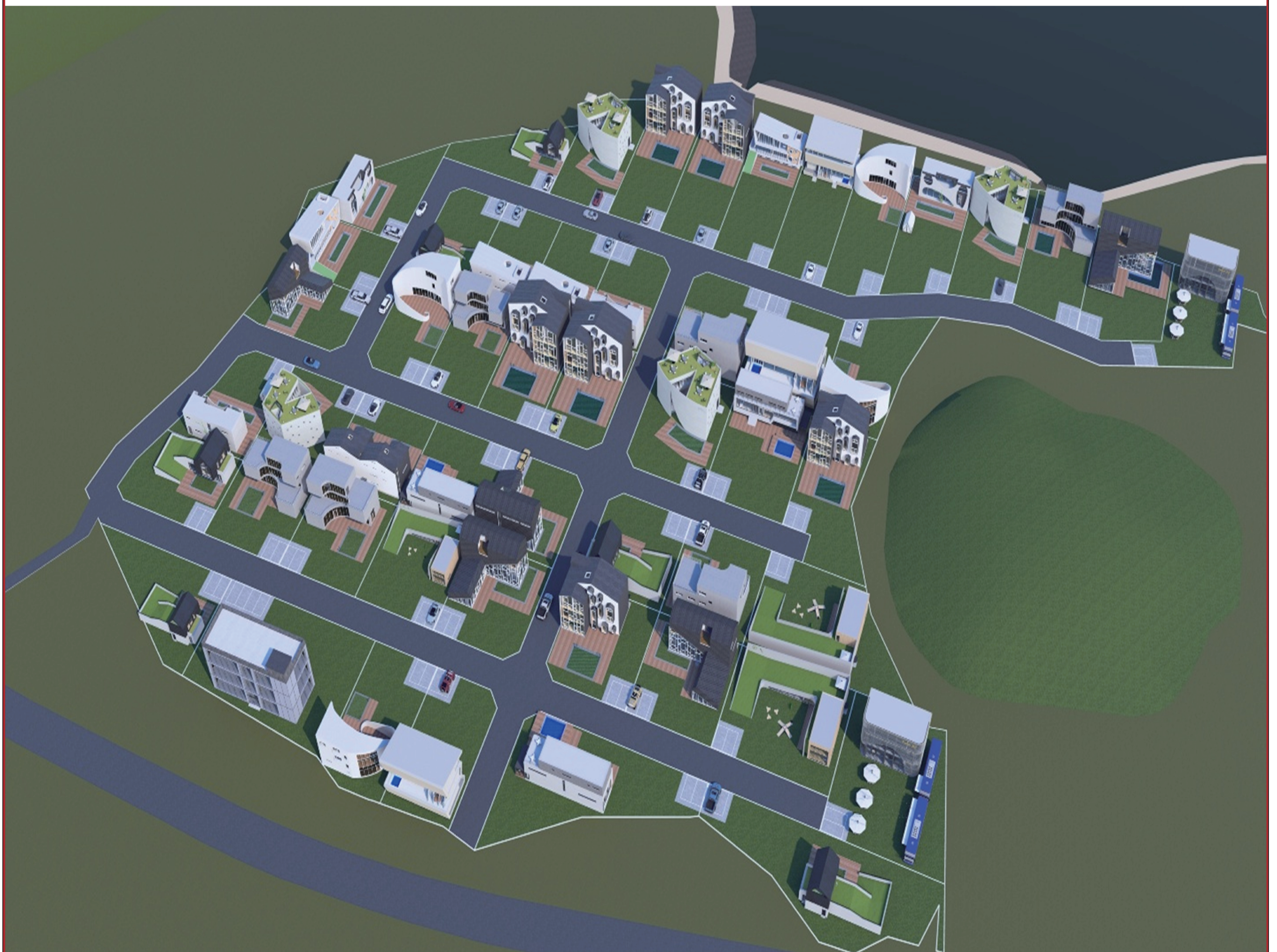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